

## 디모데전서 6장

작성일: 2011. 6. 20. (월) 저녁 7:42

작성자: 김기자

[ 일을 하다가 불현듯 주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일을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상 가운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이 스쳐 지나갔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속도가 붙어서 계속 여러 군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이 많이 보고 싶어졌고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주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 예수님 말씀 \*

지금 이 순간 네가 나를 그리움으로 내 발길을 머물게 하여 내 한달음에 달려와 네 앞에 멈추었노라.

(“예수님! 감사하고 사랑해요. 주님 저는 언제쯤이면 늘 평온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고 신앙길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다 보면 네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나날 보단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갈 때가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네 영혼만큼은 늘 평온함으로 가노라. 주의 일을 하니 주의 심정 느끼고 주를 따르니 때론 어려움과 고통도 있을 것이다. 자, 내가 네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기록해 보자.

(좀 전에 보았던 디모데전서 성서 구절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내가 네게 온 것도 바로 구원 때문에 온 것임을 알라.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려고 또한 영원한 그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사랑으로 살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네게 온 것이다.

그 선한 목적, 즉 창조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너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소리를 알아듣고 그 소리 나는 쪽을 향해 반응하는 자가 큰 것이다.

주의 소리를 듣지도 느끼지도 못하니 매주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달고 오묘하고 진귀한 말씀이 차려져도 실상 그 소리를 모르니

반응도 늦고 잘 알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만물의 왕이시자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라.

그 믿음으로 승부하라.

하나님은 너희 편이시니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주니라.

사랑하는 자여,

세상의 것들을 피하고

너를 사망에 거하게 할 것들을 피하고

오직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 사랑과 믿음, 온유, 인내로

더욱 자신 있게 나아가라.

『디모데전서 6장 13~16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 때가 있다.

너를 복음으로 불러 이곳에 서 있게 하는 것도  
때에 맞춰 한 것이고,  
또 그 때에 맞추어 복음을  
양 손 가득히 들고, 신고, 둘러메고,  
나 예수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서  
내 사랑을 불꽃같이 전할 때가 있는 것이니라.  
때의 하나님이니시라.

사람이 정하신 때에 오시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곧 가리라.  
너는 이렇게 애달프게 보고파 함을  
경건하게 끝까지 유지하라.  
나 오는 그날 전까지 더 흠도 점도 없이  
육으로, 혼으로, 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음이라.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영원히 죽지 않을 것으로 만드시사  
오늘도 그 영원함에 기대를 거시고  
이 지구촌 사랑하는 한 명, 한 명을  
다 둘러보고 또 보시기 바쁘시느니라.

세상에 너 혼자 있는 듯하느냐?

처음도 나중도

너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너의 사랑 영원한 신랑 주 예수가 함께하도다.  
내가 너와 처음도 나중도 함께 있음을 믿으라.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둘 것이 아무것도 없나니  
너 역시 그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라.  
세상 한 때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기보  
다  
내 사랑 신부들  
그 모든 인생 마음을 영원하신 이에게 더 두어라.  
너는 아버지 앞에 오직 선을 행하라.

(“주님! 그 선은 도대체 어디까지 언제까지  
행하는 것입니까? 왜 주님을 사랑한다는  
자들만 그리 살아야 합니까?

그냥 주님을 사랑했을 뿐인데 지켜야 할 것도  
너무 많고 벅차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선에서 선이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를 영원히 살릴 빛이 나니라.

나 아닌 다른 곳에 너를 두면

너는 금방 호흡이 멈춰 죽나니

너의 쉼터가 주 예수이고,

너의 호흡이 주 예수이며

인간의 생각과 수준에서 어떤 것이든

한계를 짓지 말라.

사람마다 다 제각각 선의 그릇도 다르고

깊이와 크기도 다르니라.

그 다름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끝까지 견디며 행한 그 마지막 날에 알 수 있노라.

난 네가 그 마지막 날까지 인내와 참음으로

끝까지 나만 보고 달려오길 원하노라.

가다 말면 덜 만들어진 네 영혼이 되나니

그 결말은 너무 아쉬운 결론이 되고 마는 것이다.

육으로 할 것은 육으로 하고

영으로 할 것은 영이 하는 것이다.

신앙인들의 실수가

영으로 할 것을 때론 육으로 하고,

육으로 해야 할 것을 영으로 해 버리니

곤고함과 허탈함이 남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네 인생의 주인은 나 주 예수다.

네 인생의 중심도 나 주 예수니라.

나는 네가 아무 생각 없는 바보가 되길 원치 않노  
라.

육의 것은 육이 꼭 이치적으로 판단해서 알고,

영이 알아야 할 것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기도하며 배워 알기를 원하노라.

신앙인들이 열심히 잘 따라오다가

어떤 지점의 한계 즉 육의 한계,

혼의 한계, 영의 한계에 부딪히면

놀라거나 당황하여 멍하니 서 있어 버린다.

너를 다 내려놓고 내게 기도함으로

그 한계를 나와 함께 헤쳐 나가고 이겨 나가길 원  
하노라.

악은 악을 낳고 선은 선을 낳으니

끊임없는 선을 쌓고 선을 행하며

선을 전하는 자 되어라.

사랑하는 자여,  
나는 네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길 원하노라.  
마음으로 이겨낼 것을 나와 함께하고  
욕으로 이겨낼 것도 나와 함께하고  
영으로 이겨낼 것도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믿어라.  
선하신 하나님과 주는 선한 네 편이라는 것이다.  
사랑하고 사랑한다.  
안녕.